

遼西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복합사회의 전개

김 정 열*

국문초록

요서 지역은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시대에 접어든다. 이때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요서 지역에서는 夏家店 下層文化, 魏營子文化, 夏家店上層文化, 十二臺營子文化 등의 다양한 유형의 청동기문화가 성립, 발전되어 갔다. 인류문명사는 청동기시대에 들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것은 생산력의 증대에서 말미암은 분업화, 계층화, 나아가서는 발달한 정치체의 등장 등 복합사회의 출현으로 요약되며, 요서 지역의 청동기문화에서도 그 사회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한국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요서 지역에서의 청동기문화 발전과 사회 복합화의 전개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非均 質性에서 말미암은 바가 크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과 그에 수반된 각종 유적에 대한 조사는 크게 진척된 데 반해 그 이외의 다른 문화 유형에 대해서는 주로 유물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서 지역에서 전개된 청동기 제 문화 유형의 비연속적 성격과 고고학적 조사 자료의 부족은 이 지역 청동기사회의 복합화 과정을 통시적이며 일관된 시야로 포착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요서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자료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증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지역의 청동기 사회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계통적 지표조사는 조사 지역의 사회 발전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 물질문화 자료에 입각하여 이 지역의 사회 복합화 양상과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요서, 청동기문화, 복합사회, 정치체,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위영자문화, 십이대영자문화

목 차

- | | |
|--------------------|------------------------|
| I. 서 론 | Ⅲ. 청동기시대 요서 지역 사회의 복합화 |
| Ⅱ. 요서 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 Ⅳ. 결 론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luoyang@naver.com

I. 서 론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이른바 ‘遼西’는 자연지리적 범주에 입각하여 遼河 이서의 지역을 널리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요서는 문화권의 개념에 가까우며, 그 구체적 범위는 張忠培가 대략 醫巫呂山 이서에서 西拉木倫河 양안에 걸친 지역까지로 설정한 것에 따른다.¹⁾ 이 지역에는 서랍목문화와 함께 老哈河, 大·小凌河 등의 하천 및 그 지류가 흐르며,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뻗은 努魯兒虎山이 그 중부를 관통한다. 이 산을 경계로 해서 요서 지역은 동, 서 양측의 독립된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왕왕 고고학적 문화 유형의 분계선과 일치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한 청동기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이다. 하가점하층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때가 이 글이 다루는 시간적 상한이 된다. 한편 요서 지역에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것은 전국시대 燕문화의 진출과 확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해되고 있으며, 기원전 300년경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燕將 秦開의 東胡 攻伐이 그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글의 시간적 하한은 대체로 기원전 4세기경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규정된 시공의 범위 내에서 성립·발전한 청동기문화에는 夏家店下層文化, 魏營子文化, 夏家店上層文化, 十二臺營子文化 등 각종 유형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표 1〉). 최근에는 요서 지역 청동기문화기의 최후 단계에 水泉文化, 井溝子類型, 十二臺營子後期類型, 五道河子類型 등 새로운 유형의 문화를 설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들을 다루지 않는다.²⁾ 그것은 이들 새로운 문화유형의 설정이 정당한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이들 문화유형이 식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류문명사는 청동기시대에 들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해된다. 그것은 인구 증가, 집약화 된 생산경제, 전문화된 수공업, 사회계층의 발달과 국가의 출현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 복합화 과정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에 걸친 진화적 과정으로 이해된다.³⁾ 그러므로 요서 지역의 청동기문화기에 그 사회 구조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리라 상정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중국학계는 물론 외국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하가점하층문화기에 이 문화의 권역에 널리 분포하는 성곽취락을 통해서 요서 지역에서 권력의 등장과 사회의 통합을 확인하여 보려는 시도는 그다지 낮설지 않다.⁴⁾ 특히 한국학계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 유물과 한반도 출토 청동 유물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지역이 한국 청동기문화의 성립 및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⁵⁾ 따라서 요서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역사학적

1) 張忠培, 「遼西古遺存的分區·編年及其他—“環渤海考古學術討論會”上的發言」, 『遼海文物學刊』 1991: 1.

2) 趙賓福, 「遼西地區漢以前文化發展序列的建立及文化縱橫關係的探討」, 『東洋學』 49, 2011, 10쪽.

3) 김범철,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東北亞歷史論叢』 33, 2011 참조.

4) 이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은 이재현, 「요서 지역의 문명 및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송호정 외, 『중국 동북 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2008 참조.

연구는 우리 학계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서 지역에서의 청동기문화 발전과 사회 복합화의 전개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을 따름이며,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非均質性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 예컨대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해서는 취락과 그에 수반된 각종 유적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된 데 반해, 그 이외의 다른 문화 유형에 대해서는 유물, 특히 청동 유물을 중심으로 한 형식학적 연구가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지역 청동기문화의 복합화 과정을 균질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통시적이며 일관된 시야로 포착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요서 지역에서 전개된 청동기 제 문화의 비연속성은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지역에서 변영한 상기의 청동기문화 4종은 모두 선행하는 문화와의 단절성을 농후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적 집단이 이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면서 사회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서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자료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공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 자체는 물론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요서 지역의 선사·역사문화를 대상으로 한 대한 광역적, 계통적 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⁶⁾ 자료의 증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계통적 지표조사는 조사 지역의 취락 분포와 조직에 대한 거시적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글은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의 사회에 관한 논의이다. 특히 그 사회의 복합화 양상과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발전의 맥락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바꾸어 말하면 청동기시대 요서 지역의 복합사회 발전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가 달성해 온 업적을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진전을 위한 미래의 목표와 경관을 설정하고 조망하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복합사회의 특성과 초기 정치체의 성격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요서 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1.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 제 문화의 분포 범위와 연대

요서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문화가 시작되었으며, 夏家店下層文化가 그 초기 단계에 해

5) 徐榮洙, 「古朝鮮의 位置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 2, 일조각, 1988; 吳江原, 「西遼河上流域의 靑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연구 - 銅劍의 系統과 使用集團問題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2, 1997; 이청규, 「동북아시아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1999; 이청규, 「靑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2002; 宋鎬晟,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오강원,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청동기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東洋學』 51, 2011 등.

6)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200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遼寧大凌河上流域考古調查簡報」, 『考古』 2010: 5.

당된다. 하가점하층문화는 북으로 西拉木倫河 양안, 남으로 燕山山脈 이북, 서로는 七老圖山, 동으로는 醫巫 閭山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며, 특히 老哈河 중·상류 유역과 大凌河 중·상류 유역에 위치하는 赤 峰市와 朝陽市 일대를 중심으로 번영하였다. 유적은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敖漢旗 일대에만 약 2000 여 곳이 확인되었다. 하가점하층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까지 약 500년 간 존 속된 것으로 이해되며,⁷⁾ 그 하한 연대를 약간 내려 보는 견해도 있지만⁸⁾ 이에 대한 본질적인 이견은 없다.

〈표 1〉 遼西지역 청동기문화의 서열과 연대

연대(B.C.)	努魯兒虎山 이서	努魯兒虎山 이동
2000	하가점하층문화	
1500		
1400		위영자문화
1300		
1000	하가점상층문화	십이대영자문화
900		
600		
400		

기원전 1300년경을 전후하여 하가점하층문화 분포 지역의 동부에 해당하는 大·小凌河 유역에서 魏營子 文化가 발생한다. 한동안 ‘위영자유형’이라 불렀으나,⁹⁾ 韓嘉毅이 이를 독립된 문화유형으로 간주하여 ‘위영자 문화’라는 명칭을 제안한 이래,¹⁰⁾ 후자의 명칭이 정착되었다. 위영자문화는 당초 노로아호산과 의무려산 사 이의 좁고 긴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노로아호산 이서의 노합하 유역에서도 이 문화에 속하는 유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지금은 그 분포지역을 다소 넓혀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¹¹⁾

7)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동북문화와 유언문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545~547쪽.

8) 烏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7, 5~7쪽.

9) 喀左縣文化館, 「記遼寧喀左縣後墳村發現的一組陶器」, 『考古』 1982: 1.

10) 韓嘉毅, 「燕史源流的考古學觀察」, 『燕文化研究論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1) 烏恩岳斯圖, 앞의 책, 96~97쪽;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앞의 책, 776쪽.

연구자들은 위영자문화의 시간 범위에 대해, 그 상한을 기원전 1300년경으로 보는 데 대체로 동의하나, 그 하한에 대해서는 西周 전기경, 즉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는 견해¹²⁾와 서주 말·春秋 초, 즉 기원전 800년경으로 보는 견해¹³⁾ 등 상치하는 견해가 있다. 위영자문화의 절대연대를 추정하는 주요 근거는, 이 문화의 청동기 매장 구덩이[窖藏坑]에서 출토되는 중원식 青銅禮器의 형식학적 편년에 의거한 것인데, 위영자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 하한은 대체로 서주 중기경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하한 연대는 서주 중기, 즉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⁴⁾

한편 하가점하층문화 권역의 서부 일대, 즉 노로아호산 이동의 서랍목문화와 노합하 일대에서는 하가점상층문화가 하가점하층문화의 뒤를 이어 발전하였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시간적 위치는 탄소연대측정과 출토유물의 형식 등을 통해 추정된다. 龍頭山 유적 M1 출토 木棺 파편 측정치는 3240±150B.P.이며 林西 大井 유적 F2 주거지 출토 목탄 2점의 측정치는 각각 2720±90B.P.와 2970±115B.P.이다.¹⁵⁾ 내몽고 적봉시 寧城縣의 南山根 유적, 小黒石溝 유적, 北山嘴 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중원식 청동예기 제작 연대의 하한선은 춘추 전기경이다.¹⁶⁾ 內蒙古 敖漢旗 周家地 유적의 연대는 이들보다 약간 늦은 춘추 중기, 즉 기원전 600년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하가점상층문화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경까지의 시간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이 연대관에 따르면 하가점하층문화가 소멸된 이후 약 3~5세기의 시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하가점상층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셈이 된다.

대·소릉하 유역에서 위영자문화의 뒤를 이어 번영한 것이 十二臺營子文化이다. 십이대영자문화는 특히 대릉하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당초 이 유형의 문화에 속하는 유적에서 하가점상층문화와 동일한 유형의 유물이 출토되어 하가점상층문화의 한 하위 유형(이른바 ‘凌河類型’)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⁸⁾ 이후 朱永剛은 이 문화가 하가점상층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독립된 청동기문화로 설정하였다.¹⁹⁾ 劉國祥은 이 문화의 표지유물인 비파형동검이 하가점상층문화와의 그것과 달리 그 형태에 통일적 경향이 나타나고, 청동기 장식 문양에도 일정한 특징이 공유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朱永剛의 견해를 지지하였다.²⁰⁾

십이대영자문화의 문화퇴적층은 위영자문화와 戰國時代 중기문화 사이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되어 기원전 4세기경까지 존속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遼寧省 錦西縣 烏金塘 유적, 喀左縣 南洞溝 유적, 老爺廟 果樹木營子 유적 그리고 凌源縣 三官甸子 유적 등 묘지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

12) 烏恩岳斯圖, 위의 책, 97쪽.

13) 董新林,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2000: 1.

14) 김정열, 「요서 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이청규 외,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81~85쪽.

15) 烏恩岳斯圖, 앞의 책, 176쪽.

16) 김정열,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韓國上古史學報』 72, 2011.

17) 烏恩岳斯圖, 앞의 책, 176쪽.

18) 郭大順, 「西遼河流域青銅文化研究的新進展」, 『中國考古學會第四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5, 187~189쪽.

19) 朱永剛,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1987.

20) 劉國祥,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 1, 485~487쪽.

격창(戈)은 전국시대 전기의 것이고, 略左縣 大城子鎮 南溝門 유적 석곽묘에서 출토된 直刃劍, 帶鈎, 尖首刀 幣 등은 춘추시대의 것이며, 三官甸子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세발솥(鼎)은 전국시대 중기경의 것이다. 이들 유물의 연대 또한 유물 퇴적층의 상호관계를 통해 추정된 연대관과 모순되지 않는다.²¹⁾

2. 요서 지역 청동기시대 제 문화의 계통

요서 지역 청동기문화의 서막을 연 하가점하층문화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異見이 있다. 하나는 요서 지역에서 선행 발전한 후기 신석기문화, 즉 紅山文化에서 小河沿문화로 이어지는 문화계보를 계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²²⁾ 다른 하나는 중원지역에서 발달한 후기 신석기문화 및 청동기문화 전통의 영향 하에 발생한 변종으로 인식하는 견해이다.²³⁾ 후자의 경우는 大甸子 유적에서 발견된 盃, 爵, 鬻 등의 토기(〈그림 6〉 8~12)가 중원지역 二里頭文化에서 관찰되는 동류 유물과 유사하다거나, 하가점하층문화 채색 토기에 보이는 주요 도안이 商代 청동예기에 보이는 그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현재까지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볼 때 전자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劉觀民은 石棚山, 石羊石虎山, 白斯朗營子 南臺地 유적 등, 하층문화에 선행하는 해당 지역의 신석기 후기 유적에서 출토된 土尊과 하층문화의 土尊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徐光冀는 대전자 유적에서 출토된 옥기와 紅山文化 옥기의 형태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채색 토기의 도안 역시 홍산문화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²⁴⁾ 大甸子 유적에서 출토된 이리두문화 계통의 각종 토기는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원거리 교역을 통해 입수되었다고 보는 미야모토의 견해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²⁵⁾

위영자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우선 위영자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친연관계를 상정하는 견해이다. 郭大順은 하층문화의 매우 많은 요소가 위영자유형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주장하고,²⁶⁾ 烏恩岳斯圖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근거에 의거하여 郭大順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첫째, 위영자문화는 하층문화에 後行하며, 위영자문화에 속하는 주요 유적은 하층문화 유적 위에 중복된 상태로 발견된다. 둘째, 하층문화 후기의 토기는 그 태도, 기형과 문양 등에서 위영자문화로 계승된다. 셋째, 위영자문화에서 발달한 청동기는 하층문화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며, 특히 청동제 나팔형 귀걸이는 하층문화의 同類 유물과 흡사하다.²⁷⁾

반면 친연성보다 단절성을 주요한 측면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趙賓福은 하가점하층문화와 위영자문화의 토기에서 공히 繩紋을 볼 수 있지만, 위영자문화의 경우는 승문을 抹平하여 하층문화의 그것과는

21) 烏恩岳斯圖, 앞의 책, 228쪽.

22)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앞의 책, 2008, 615~618쪽.

23) 王立新 외, 『夏家店下層文化淵源雜論』, 『北方文物』 1993: 2.

24) 烏恩岳斯圖, 위의 책, 25~27쪽.

25) 宮本一夫, 『中國古代邊疆史의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2000. 88~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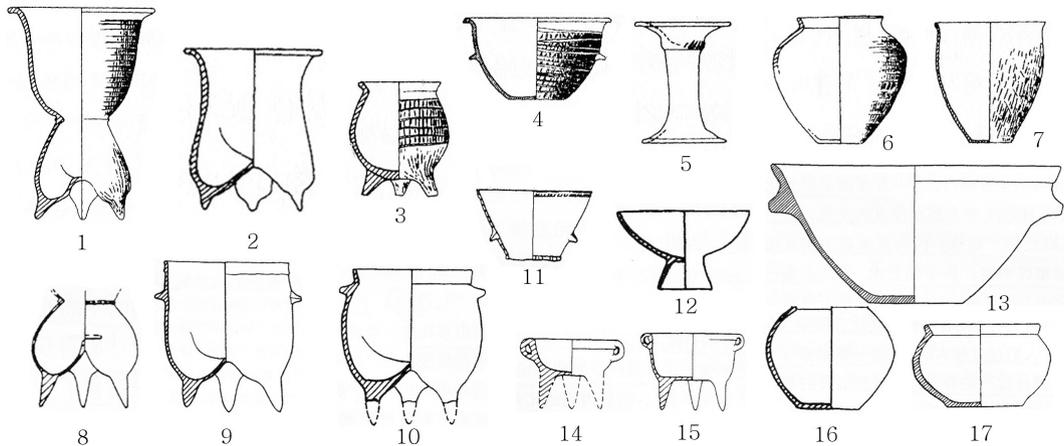
26) 郭大順,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1987, 91~92쪽;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위의 책, 781~784쪽.

27) 烏恩岳斯圖, 앞의 책, 34쪽.

다른 느낌을 주는 것, 양 문화에 보이는 통형 素面鬲의 형태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이것은 다른 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층문화의 토기는 주로 점토질인데 반해 위영자문화의 토기는 주로 사질이라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양 문화의 토기 계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⁸⁾

烏恩岳斯圖가 제시한 증거 가운데 이 문화의 유적이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 위에 중복되어 발견된다는 주장은 특별히 의미 있는 증거라 보기 어렵다. 또한 위영자문화의 청동기는 중원에서 입수한 청동예기²⁹⁾와 환수도, 투부 등 이른바 북방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걸이 등의 일부 장식품을 제외하면 하층문화의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³⁰⁾ 따라서 위영자문화가 하층문화 이래의 지역적 문화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하가점상층문화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층문화 유적은 하층문화 유적 위에서 중복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층문화와 상층문화가 처음 식별되었을 때부터 양 문화의 내용에 보이는 상당한 차이 때문에 둘 사이에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³¹⁾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하층문화와 상층문화 사이에서 위영자문화가 식별되고, 위영자문화가 위치하는 시간적 범위가 바로 하·상층문화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상층문화의 기원 이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1〉 하가점하·상층문화 토기³²⁾

1~7. 하가점하층문화 8~17. 하가점상층문화

28) 趙賓福, 앞의 논문, 2011, 9쪽.

29) 김정열, 앞의 논문, 2009, 110~119쪽.

30) 董新林, 앞의 논문, 2000, 19~25쪽.

3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2, 80~81쪽;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5: 1, 141~144쪽.

32) 귀다순·장성터, 앞의 책, 548쪽; 烏恩岳斯圖, 앞의 책, 200쪽에서 재편집.

이러한 郭大順은 위영자문화가 하층문화를 계승하여 발생하고, 이후 이것은 다시 상층문화의 한 하위유형인 ‘凌河類型’으로 계승되어 갔다고 함으로써 상층문화가 위영자문화를 매개로 하여 하층문화 아래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이해하였다.³³⁾ 그러나 근년에 들어 그가 설정했던 이른바 ‘凌河類型’을 상층문화의 한 하위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문화 유형으로 구분하여 十二臺營子文化(혹은 ‘凌河文化’라고도 한다)로 설정하면서, 위영자문화와 상층문화의 관계에 대한 객대순류의 논의는 무의미해졌다. 뿐만 아니라 위영자문화의 주요 분포지역은 대·소릉하 유역이고, 상층문화의 주요 분포지역은 서랍목류하와 노합하 유역이므로 양자의 분포지역 역시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시간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하가점상층문화에 선행하는 청동기문화 유형은 하가점하층문화이다. 따라서 상층문화와의 친연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하층문화일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문화 내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상층문화의 취락에는 하층문화의 취락에서 널리 발견되는 성곽이 보이지 않고, 하층문화의 주요 묘제인 토광묘는 상층문화의 석관묘와는 확연히 다른 묘제이다. 하층문화의 토기는 기형과 문양은 물론 태토와 제작수법에서도 상층문화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³⁴⁾ 그리고 상층문화의 청동기는 중원에서 유입된 일부 청동예기를 제외하면, 병기와 궁구, 車馬具와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북방계에 속하는 것을 主流로 한다.³⁵⁾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하층문화와 상층문화가 직접적인 계승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 1〉 참조).

십이대영자문화가 존속한 시간적 범위는 상당히 넓어 西周 중기부터 燕文化 진입 이전까지 약 600년간 이어진다. 상당수의 연구자는 십이대영자문화가 위영자문화를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라 주장한다. 시간적 위치로 볼 때 위영자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가 선후로 서로 연결되며, 그 문화 내용에서도 상당한 계승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문화는 토기 기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십이대영자문화 유적에서는 三足器가 보이지 않고 平底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위영자문화에서는 鬲과 甗 등 삼족기가 유행한다. 청동단검의 형태도 위영자문화의 直刃形에서 십이대영자문화의 비파형으로 바뀌는데, 후자는 그 형태가 매우 특징적이어서 전자가 그대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영자문화의 무덤은 대부분이 토광목곽묘이지만, 십이대영자문화의 그것은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석곽묘이다. 이처럼 양 문화에는 토기와 무기의 형태부터 무덤의 구조까지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십이대영자문화가 위영자문화를 계승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요서 지역에서 전개되어 간 각 유형의 청동기문화 사이에서는 계승적인 측면보다는 단절적이며 비연속적 속성이 더욱 분명하다. 그것은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집단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동일한 문화적 계보에 속하는 집단이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며 그들의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33) 郭大順, 앞의 논문, 1987, 91~92쪽.

34) 烏恩岳斯圖, 앞의 책, 180~200쪽.

35) 烏恩岳斯圖, 위의 책, 180~195쪽; 205~215쪽.

Ⅲ. 청동기시대의 요서 지역 사회

1.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

요서 지역에서 최초로 정착생활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0년기의 興隆窪文化人이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토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석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하천에 가까운 배산임수의 비교적 얇고 평탄한 구릉 위에 사각형의 반지하식 주택을 체계적인 구획 하에 배치한 취락을 건설하였으며,³⁶⁾ 홍룡과 유적과 白音長漢 유적 등에서 보듯이 일부 취락에는 환호도 설치되었다.³⁷⁾ 이후 기원전 5000년기에 들어 성장한 趙寶溝文化의 취락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나, 紅山文化期에 들면 취락이 集體化되고 계층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홍산문화인은 높지 않은 구릉의 남쪽 혹은 동쪽 경사지에 취락을 건설하였으며, 3~10만㎡에 달하는 대형 취락도 건설하였다. 홍산문화에서 대형 취락이 등장한 것은 이 문화의 취락 사이에 계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牛河梁 유적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는 권력자가 등장했음을 시사한다.³⁸⁾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홍산문화기의 인구 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이들 사이에서 사회적 기능의 조정과 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발달한 정치조직이 등장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³⁹⁾

그런데 기원전 3000년기의 최후기에 들면서 요서 지역에서는 돌연 급속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유적 개체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입증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된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 프로젝트 팀은 내몽고 赤峰市 서남부와 서북부 일대, 765.4km²의 면적에 걸쳐 계통구역조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광역에 걸친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위치와 유물 산포면의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赤峰市 서남부 일대 각 時代 수량화 지수⁴⁰⁾

문화	유적 수량	채집점 수량	채집점 면적(km ²)	토기편 수량	100년당 토기편 수량	밀도/면적지수	100년당 밀도/면적지수
興隆窪	17	19	0.18	56	7	1.18	0.16
趙寶溝	29	39	0.37	320	43	7.95	1.06
紅山	160	246	2.69	1803	120	41.73	2.78

36)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앞의 책, 236~241쪽.

37) 田廣林, 『中國東西北遼河地區的文明起源』, 中華書局, 2004, 140~141쪽.

38) 귀다순·장성터(지), 김정열(역), 앞의 책, 406~415쪽.

39)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앞의 책, 30~32쪽.

40) 赤峰中美聯合考古項目, 앞의 책, 178쪽에서 선별 인용.

문화	유적 수량	채집점 수량	채집점 면적(km ²)	토기편 수량	100년당 토기편 수량	밀도/면적지수	100년당 밀도/면적지수
小河沿	36	43	0.44	237	30	6.07	0.76
夏家店下層	379	801	8.51	8997	1000	466.80	51.87
夏家店上層	348	768	10.25	10100	1443	451.29	64.47
戰國-漢	254	439	4.82	4694	587	206.34	25.79
遼	455	720	8.10	6635	737	502.60	55.85

유적은 문화 속성은 토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된 시기는 홍룡와문화기(기원전 6000~기원전 5300)부터 遼代(916~1125) 전후까지 약 7000년간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통계 수치의 혁명적인 변화는 기원전 3000년기 하가점하층문화의 출현과 함께 일어났다. 이 문화의 유적 수량은 홍산문화의 그것에 비해 약 2.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유물산포면의 면적 역시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유적의 개체 수 만을 따지면 홍산문화의 유적은 평균 약 4.8km²에서 하나씩 발견되는 데 반해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은 평균 약 2km²에서 하나씩 확인된다. 이 수치는 유적의 밀도를 고려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로 증폭된다. 예컨대 홍산문화의 밀도/면적지수는 41.73인데 반해 하가점하층문화의 그것은 466.80으로 양자 사이에는 약 10배가량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문화존속기간을 변수로 대입하면 그 차이는 2.78에서 51.87로 더욱 확대되어 약 19배가 된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사자의 자의성과 유물산포면 면적의 평가에 개입될 수 있는 주관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의 통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하가점하층문화기에 들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난 것이다.

인구의 증가를 이끈 것은 농업이다.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서는 起耕에서 中耕, 수확, 그리고 곡물 가공까지 농업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된 다양한 석제 및 목제 농기구가 확인되며, 탄화된 곡물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이것은 하가점하층문화가 발달한 집약적 농업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하층문화 유적의 문화층이 전반적으로 두껍고, 출토 유물도 풍부한 것은 이 문화의 주인공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⁴¹⁾

농업의 발달은 전문적 수공업의 탄생과 원거리 교역 개시의 배경이 되었다. 전문적 수공업이라면 청동제품 등 금속기와 옥기 및 토기 제작 공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왕에 발견된 이 문화의 청동제품은 대개 귀걸이, 반지, 지팡이 머리 장식 등 소형 장식품이다. 水手鬻子 유적에서 출토된 길이 80cm가량의 꺾창도 있지만 다소 예외적인 존재이며 아직 청동제 容器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의 청동기 제조업이 내법과 외법으로 구성된 복합법을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용기의 제작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리라 추정된다.⁴²⁾

41) 王立新,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 3, 255~266쪽.

42) 귀다순·장성터(저), 김정열 역, 앞의 책, 559~560쪽; 烏恩岳斯圖, 앞의 책, 19~21쪽.

玉器에는 斧, 鉞 등의 禮器類와 玦, 環, 鈎雲形器, 새·거북·물고기 모양 장식품 등 장식류 그리고 箍形器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옥기의 제작에는 版飾法, 管鑽法, 磨研法, 線彫技法 등 다양한 제작기술이 동원되었으며, 이는 하가점하층문화인이 숙련된 공예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³⁾ 토기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채색 토기이다. 이것은 소성 후의 토기 표면에 홍색과 백색의 광물 안료를 사용하여 도안을 그린 비실용기로서 하가점하층문화의 권역 각지에서 널리 확인된다. 도안은 매우 다양하여 모두 170여 종에 달한다. 鼎, 罐, 壺, 尊, 簋 등 각종 토기의 구연과 복부에 그려지는데, 높은 기술적 수준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그림 7〉 참조). 하가점하층문화의 청동기, 옥기, 일부 토기 등에 보이는 높은 기술적 성취는 전문화된 장인집단이 이 문화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⁴⁴⁾

원거리교역은 이 지역에서 제작된 바 없는 특정한 형태의 유물이나 생산되지 않는 물자의 존재를 통해 추정된다. 예컨대 大甸子 유적에서 출토된 盃, 爵, 鬻 등 정교하게 제작된 회백색 토기(〈그림 6〉 8~12)는 고도로 숙련된 중원지역의 전업기술자에 의해 제작된 것이며,⁴⁵⁾ 海貝는 하가점하층문화의 권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이다.⁴⁶⁾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적 정관에서 주목되는 것은 石城으로 둘러싸인 취락이다. 이 시대의 취락은 대부분 성곽을 갖추고 있다. 구릉과 대지 위에 건설된 성은 대부분 석축으로 하천을 따라 선상으로 분포하며, 평지에 건설된 성은 대개 토성으로 하곡지대를 벗어나 개활지로 전개되어 간다. 1960~70년대에 걸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내몽고공작대는 적봉시 북쪽을 흐르는 陰河와 英金河 북안의 약 100km에 걸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성지 43곳을 발견하였다(〈그림 2〉 1). 조사자인 徐光冀는 당초 발견된 성지를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尹家店에서 三座店까지 20km 범위 내 20기, 두 번째 그룹은 初頭朗에서 當鋪地까지 약 20km 범위 내 12기, 세 번째 그룹은 王家店부터 水地까지 약 20km 범위 내 5기이다. 徐光冀에 따르면, 하가점하층문화에서 확인된 이 세 그룹의 성지는 각각 대·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해당 그룹의 중심취락이 된다.⁴⁷⁾

대개 성곽은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부터 취락이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의 출현은 이 시대에 사회적 긴장이 고양됨에 따라 집단 간의 갈등이 상존하였음을 의미한다. 三座店이나 康家屯 석성에 보이는 雉는 성벽의 방어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며⁴⁸⁾, 하가점하층문화의 석·골제 화살촉 등이 인명살상용으로 개량되고, 그 출토량이 공전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이 시대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⁴⁹⁾ 또한 성곽의 건설은 비교적 커다란 사회적 비용의 투여를 필요로 하여,

43) 劉國祥, 「大甸子玉器試探」, 『考古』 1999: 11.

44) 이청규,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이청규 외,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54~57쪽.

45) 宮本一夫, 앞의 책,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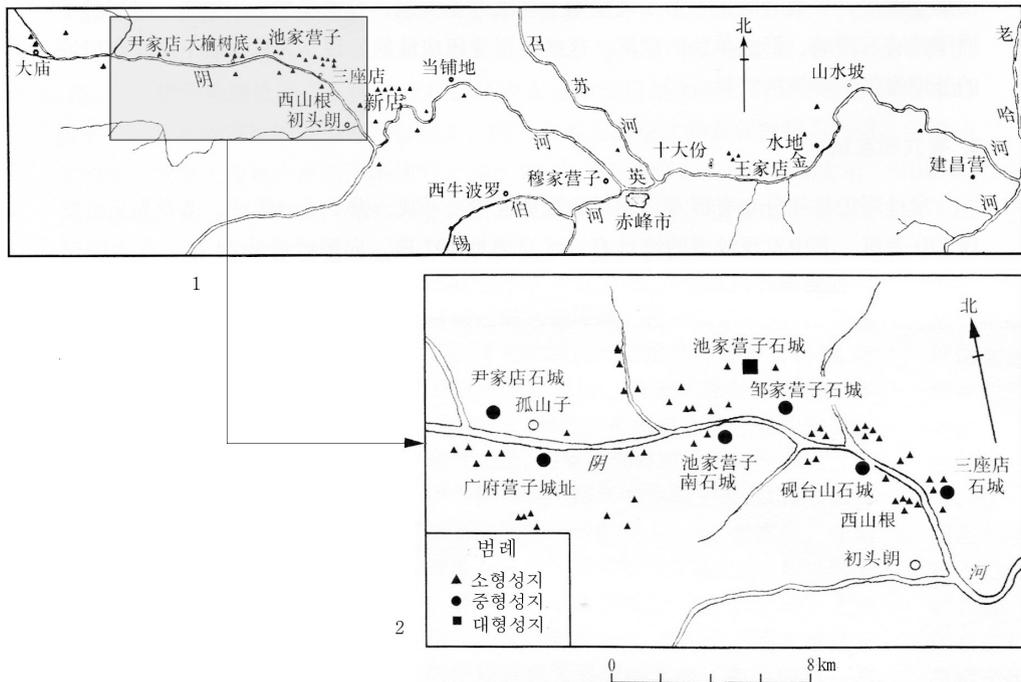
46)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앞의 책, 33쪽.

47) 徐光冀, 「赤峰英金河, 陰河流域의 石城遺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편, 『中國考古學研究 - 夏鼐先生考古五十周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

48) 서길수, 「夏家店下層文化的 石城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1, 2008, 91~103쪽.

49) 田廣林, 앞의 책, 181~1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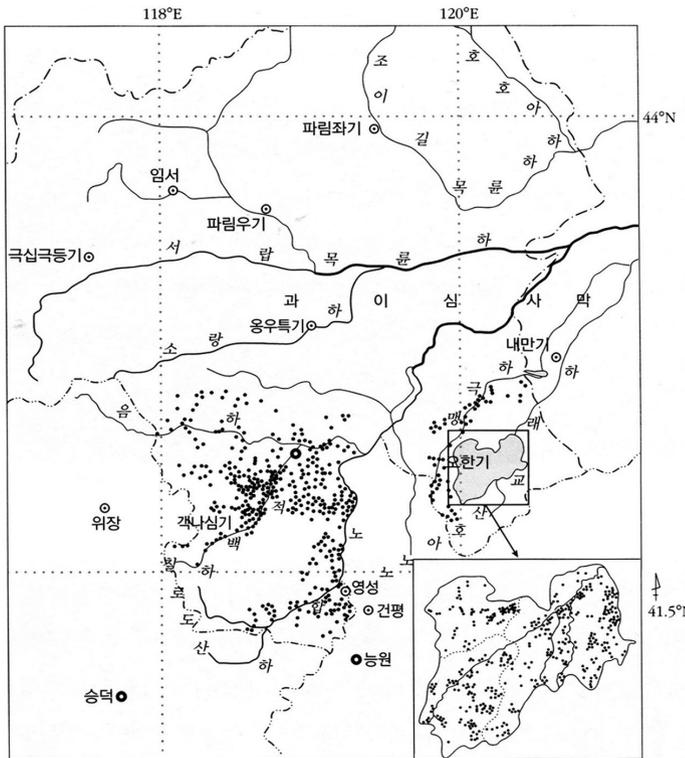
거기에는 대형 토목공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의 존재는 물론, 비생산적 노동 투여를 감당할 수 있는 해당 사회의 공공적 재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층문화에 보이는 위와 같은 취락 群體는 군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 걸친 구심적 성격의 정치적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해된다. 즉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는 개개의 취락이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집단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⁵⁰⁾



〈그림 2〉 英金河, 陰河 유역 하가점하층문화 城址 분포⁵¹⁾

그러나 위에 보는 것과 같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진화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재현은 이 시기의 성곽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여 성곽은 당시의 취락에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취락을 둘러싼 성은 비록 성곽이란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축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상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 시대의 성곽이 넓은 범위에 걸쳐 고루 분포하며 그 크기도 들쭉날쭉하여 어떤 법칙성도 찾을 수 없다는 서길수의 경험적 판단⁵²⁾을

50) 田廣林, 「夏家店下層文化時期 西遼河地區的社會發展形態」, 『考古』, 2006.3.
 51) 烏思岳斯圖, 앞의 책, 10쪽; 田廣林, 앞의 글, 48쪽에서 재편집.
 52) 서길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의 석성(石城)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1, 2008, 112~113쪽.



〈그림 3〉 내몽고 동남부 하가점하층문화 성지 분포⁵⁴⁾

인용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성곽의 규모에 나타나는 대형과 소형의 차이는 취락의 규모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이며, 현재의 자료로서는 대형 성지라고 해도 주변과 차별화되는 정치, 경제, 의례 등 권력의 중심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하가점하층문화의 성곽은 구릉과 골짜기가 많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자연환경에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거주민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출현했으며, 이것은 이를테면 취락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을 따름이다.⁵³⁾

이재현의 견해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성곽을 근거로 해서 고대국가의 형성을 주장하는 중국학계 일각의 이를테면 ‘과대평가’에 대

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그렇지만 당시의 취락이 그 규모에 보이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상호간에 내적인 연계가 없이 무질서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996년부터 2000년에 걸쳐 赤峰考古隊는 半支箭河 중류 지역 일대에서 정밀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⁵⁵⁾ 조사범위는 서쪽으로 동경 118도 36분 30초, 동쪽으로 동경 118도 45분 55초, 북쪽으로 북위 42도 10분 45초, 남쪽으로 북위 42도 1분 35초에 이르는 지역이며, 전체 조사면적은 모두 221km²에 달한다. 조사 구역 안에는 灰甲山河의 하류와 반지전하의 중류 지역 대부분, 그리고 清水河 중류와 錫伯河 유역의 일부가 포함된다. 이 조사를 통해서 先秦시대의 유적 220곳이 발견되었다(〈표 3〉).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분포하는 각 문화기의 유적은, 그 면적은 물론 분포의 집중도에서 특정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조사구역 내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에는 몇몇 대형 유적이 존재하고, 이들 대형 유적의

53) 이재현,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이청규 외, 앞의 책, 2009, 52~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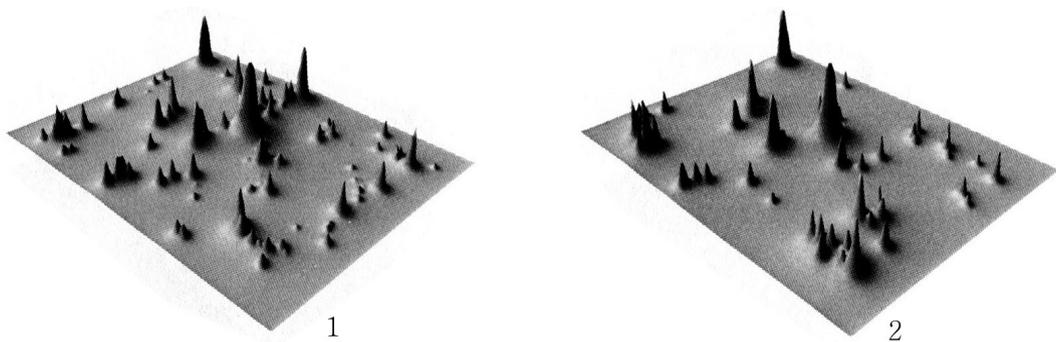
54) 이재현, 앞의 논문, 23쪽에서 전재.

55) 赤峰考古隊,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 - 赤峰考古隊田野工作報告之一』, 科學出版社, 2002.

주변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소형 유적의 산포되어 있다. 조사구역 내에서 발견된 각 문화기의 유적 면적과 분포의 조밀도에 근거하여, 각 시대의 유적을 지형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의 <그림 4>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지전하 일대의 하층문화 유적에서는 16개의 군집이 발견되며, 이들 군집 가운데서도 특히 중앙에 위치한 유적군이 그 면적과 집중도에서 탁월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주변에 배치된 유적군은 그 정도가 중앙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

<표 3> 半支箭河 유역 先秦 각 시대 유적 개체 수

소속 문화(혹은 시대)	유적 수량	소속 문화(혹은 시대)	유적 수량
興隆窪文化 혹은 趙寶溝文化	1	夏家店下層文化 혹은 夏家店上層文化	1
趙寶溝文化	9	夏家店下層文化 혹은 근현대 이차 퇴적	3
趙寶溝文化 (?)	2	夏家店上層文化	68
趙寶溝文化 혹은 紅山文化	2	夏家店上層文化, 夏家店下層文化 중복 가능성	3
紅山文化	18	夏家店上層文化 (?)	5
紅山文化 (?)	3	夏家店下層文化 (?)	5
小河沿文化	5	新石器時代부터 戰國時代까지	2
小河沿文化 (?)	1	夏家店上層文化 혹은 戰國時代	2
夏家店下層文化	141	戰國時代	39
夏家店下層文化, 夏家店上層文化 중복 가능성	1	戰國時代 (?)	1
夏家店上層文化, 戰國時代文化 중복 가능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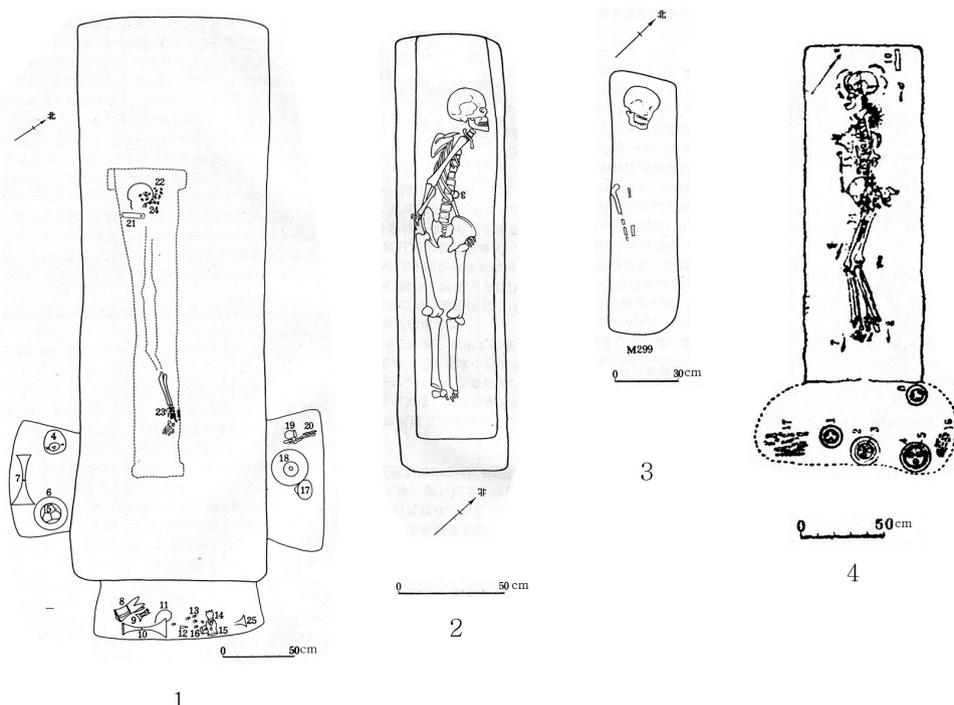
<그림 4> 半支箭河 유역 夏家店下·上層文化 유적 분포⁵⁶⁾

1. 夏家店下層文化 2. 夏家店上層文化

56) 滕銘予,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09, 206~207쪽에서 재편집.

취락의 분포 양상과 크기에 대한 고고학의 경험적 연구 성과는 유적의 면적이 클수록 거주하는 인구의 수량이 많고 그 지위 또한 높다고 인식한다. 취락이 몇 개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상위에 위치하는 취락은 주변의 취락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둘러싼 다른 취락과 함께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다. 중심적 취락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가 되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階序의 위치에 있는 지역 중심지와 상이한 규모의 군집 출현은 사회조직의 발전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된다. 반지전하 일대의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은 중앙의 대형 취락과 그 주변에 배치된 중형 취락, 그리고 대형 취락과 중형 취락을 각각 둘러싼 소형 취락이 일정한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런 취락 분포 양상은 윤가점에서 삼가점까지 음하 유역에서 확인되는 성곽취락의 배치 양상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유적은 지표에서 관찰되었을 뿐이며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실제적인 내재 관계가 있었다는 판단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들 사이에서 일정한 정도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大甸子 유적과 范杖子 유적의 무덤이다.



〈그림 5〉 하가점하층문화 무덤⁵⁷⁾

1. 大甸子 M726 2. 大甸子 M1164 3. 大甸子 M299 4. 范杖子 M25

5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內蒙古文物工作隊, 1984에서 재편집.

대전자 유적은 적봉시 오한기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하가점하층문화기의 유적으로 판축 성지와 묘지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지와 묘지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다. 성지의 면적은 약 7만㎡이며, 묘지의 면적은 약 1만㎡이다. 묘지에서는 모두 804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지만, 성지에 대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⁸⁾ 한편, 범장자 유적은 대전자 유적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취락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묘지는 그보다 다소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묘지는 비탈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침식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입었으며, 침식에 의해 생긴 도랑에 의해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묘지에서 확인, 조사된 무덤은 모두 88기이다.⁵⁹⁾ 묘지의 규모와 취락 추정지의 상황으로 보아 범장자 유적 역시 취락과 묘지로 구성된 유적이라 생각되며, 그 규모는 대전자 유적보다 작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락 규모의 차이는 거주 인구의 다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취락의 규모에 따라 묘지의 외적 규모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양 묘지에서 발견된 무덤 규모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대전자 유적에서 가장 큰 무덤인 M726(〈그림 5〉 1)은 묘광의 크기가 장변 4m, 단변 1.4m이며 목제 장구를 갖추고 있다. 부장품은 주로 남변의 동, 서, 남 세 방향에 설치된 벽감에 분산 배치되었는데, 鬲 3점, 罍 1점, 爵 1점, 罐 3점, 壺 1점, 鼎 2점 등 토기 11점,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칠기 1점, 觚形 칠기 2점 등 칠기 3점, 칠기에 상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터키석 편 200점, 海貝 12매 등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목제 장구 안에서 玉貝 1점, 海貝 총 243점, 터키석 구슬 5점 등이, 복토에서는 石鏟 1점과 돼지와 개 뼈 각각 2개 등 총 3개 개체분이 발견되었다.⁶⁰⁾

반면 범장자 최대의 M25(〈그림 5〉 4)의 경우, 묘광의 크기는 장변 2.05m, 단변 0.7m이며, 목제 장구는 보이지 않는다. 부장품은 주로 남벽에 설치된 벽감에 놓여 있는데, 鬲 4점, 罐 1점, 채색 罐 1점 등 6점의 토기와 골제 축 4점, 石鏟 1점, 터키석 串珠 3점, 鹿角器 1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밖에 돼지 1개 개체분의 유해도 출토되었다.⁶¹⁾ 즉, 대전자와 범장자 각 유적에서 조사된 최대 규모의 무덤은 묘광의 크기와 장구, 그리고 부장품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자 M726의 경우에는 외래품이라 생각되는 土罍와 爵, 터키석이 상감된 칠기, 그리고 상당량의 海貝가 매장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대전자와 범장자 양 취락의 묘지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차이는 두 취락이 소유하고 있는 재부의 다과를 반영할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닌 외래계의 물품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가지는 재부의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와 같은 차별적 양상은 동일한 취락 내의 무덤들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자는 대전자 묘지의 무덤을, 묘광의 평면 면적 1.7㎡ 전후를 기준으로, 그보다 평면 면적이 큰 것(2.2㎡ 이상)은 대형, 그보다 작은 것은 소형으로 구분했다. 대형은 모두 143기로 묘지 전체의 약 18%, 중형(〈그림 5〉 2)은 434기로 약 54%, 소형(〈그림 5〉 3)은 175기로 약 22%를 차지한다.⁶²⁾ 다만 소형묘의 경우에는 아동의 것이 약 49%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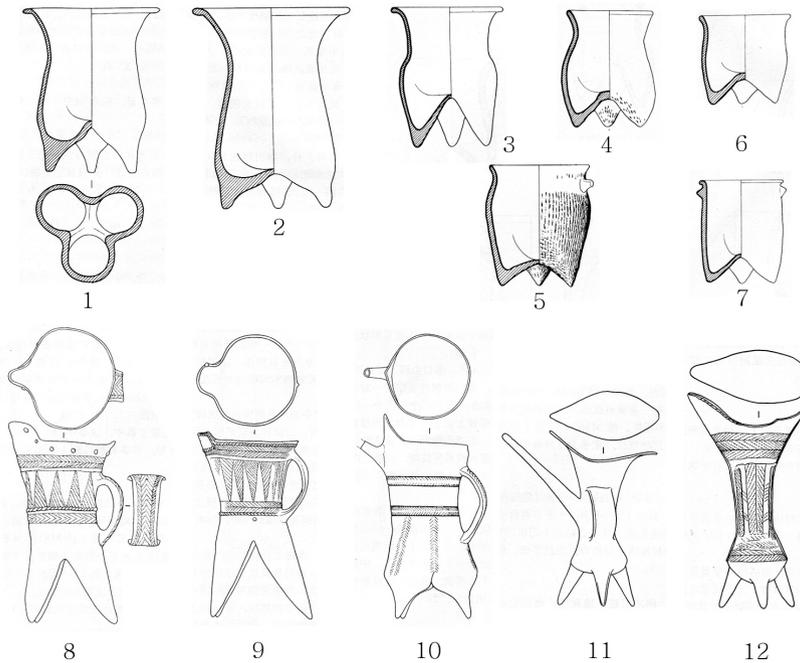
5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98.

59) 內蒙古文物工作隊, 『敖漢旗范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3, 1984.

6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앞의 책, 1998, 46~49쪽.

61) 內蒙古文物考古隊, 앞의 논문, 1984, 23~24쪽.

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앞의 책, 39~44쪽.



〈그림 6〉 大甸子묘지 출토 토기⁶³⁾

1. 尊式甗(M854:1) 2. 尊式甗(M881:2) 3. 鼓腹甗(M303:1) 4. 鼓腹甗(M486:6) 5. 鼓腹甗(M51:3) 6. 直腹甗(M1072:2)
7. 直腹甗(M31:3) 8. 鬻(M713:9) 9. 鬻(M666:7) 10. 盃(M853:7) 11. 爵(M905:10) 12. 爵(M853:9) 이상 축척 부동.

차지하므로 특별히 의미 있는 통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⁶⁴⁾

대전자 묘지는 그 중앙부에 동북-서남 방향으로 형성된 약 4m 폭의 공백지대를 경계로, 북·중·남구 등 3개의 大區로 구분되며, 각 대구는 무덤의 배열 양상과 부장품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시 몇 개의 하위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북·중·남 3개의 大區는 그 분리된 공간뿐만 아니라 부장된 土甗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적 집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대체로 북구에는 尊式甗, 중구에는 鼓腹甗, 남구에는 直腹甗를 중심으로 하지만(〈그림 6〉 1~7) 각 대구역을 구성하는 하위 구역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양상의 복합적 구성도 보인다. 복합적인 구성은 대전자 취락에 집거한 서로 다른 배경의 집단 사이에 발생한 통혼의 결과로 이해된다.⁶⁵⁾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 大區 사이의 계층적 차별 양상이다. 이를테면 보고자가 분류한 대형 무덤은 주로 북구에 분포되어 있고, 이 북구의 대형 무덤은 甗·罐을 3~4세트 부장하고 있다. 특히 정밀하게 제작된 외래의 토제 爵·鬻, 盃 등 酒器(〈그림 6〉 8~12)를 부장품으로 소유한 무덤 13기 가운데 12기가 북구에 위치

6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74~84쪽에서 편집.

64) 宮本一夫, 앞의 책, 88~89쪽.

6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앞의 책, 1998, 214~221쪽.

하며, 이 12기 가운데서도 7기가 AI 구역에 분포되어 있다. 칠기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칠기를 부장한 무덤 11기는 모두 북구에 위치하고, 그 가운데 5기는 AI 구역, 3기는 AII 구역에 위치한다. 부장된 채색 토기 가운데 토기의 주요 화면을 대형 獸面紋으로 장식한 것(Aa식)은 모두 37기에서 확인되었는데(〈그림 7〉 1~2), 이 가운데 32기는 북구에서, 그중에서도 11기는 AI 구역에서 출토되었다. 이런 유형의 채색 토기는 중구에서는 드물게 출토되며, 남구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⁶⁶⁾



〈그림 7〉 大甸子묘지 출토 채색토기 각종 문양

1. Aa식(M1147:2) 2. Aa식(M1265:1) 3. Ab식(M371:9) 4. Ab식(M612:18) 5. Ba식(M726:14)
6. Ba식(M610:6:14) 7. Bb식(M1148:3) 8. Bb식(M674:3)

대전자 묘지에 나타나는 차별적, 계층적 양상은, 3개의 대구로 표현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인적 집단이 하나의 취락에 거주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북구의 집단이 사회의 최상층부를 점하면서 해당 사회의 주요한 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⁶⁷⁾ 대전자 취락은 기본적으로는 혈연관계를 사회 구성의 기본원리로 하면서도, 출신을 서로 달리하는 사람들이 집거하는 사회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재부의 불평등한 소유로 상징되는 계층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이 사회의 최상층부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외래계의 물건이 포함된 특수한 부장품을 위신재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적 위치를 과시하였다.⁶⁸⁾

하가점하층문화기에는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의 복합화가 전개되어갔다. 취락이 계층화되고,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는 취락 사이에서 진행된 위계질서는 취락 내부까지 파고들었다. 대형 취락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집거하였으며, 집단 간에 계층분화가 발생하였다. 대전자 묘지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에 의해 분할 점거되고, 무덤 규모의 질적, 양적 차이는 분할된 구역과

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위의 책, 1998, 219~220쪽.

67) 田廣林, 앞의 책, 177~179쪽.

68) 宮本一夫, 앞의 책, 88~100쪽.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대전자 사회 구성원의 계층화가 혈연을 단위로 하여 전개되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은 취락 및 취락 내부 구성원 사이의 계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자 묘지의 경우, 대형 무덤은 묘지 전체의 약 18%, 중형은 약 54%를 차지한다. 그밖에 소형이 약 22%를 차지한다. 소형 무덤의 대부분이 아동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성비는 취락 구성원의 계층 피라미드가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 대형 무덤에서 발견된 부장품은 중·소형 무덤의 그것에 비하면 많지만, 양자의 차이가 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墓域의 분할이 계층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상이한 혈연 집단 간에서 발생한 것은 사회 최상층부의 권력이 혈연적 공동체에서 탈피할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하가점하층문화의 대형 취락에서부터 소형 취락까지 모두 석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각 취락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락과 취락 사이의 위계화는 진행되었지만, 당시의 취락사회 내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충분히 성숙한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2. 하가점상층문화의 사회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하여 노로아호산 이서의 서랍목문화와 노합하 일대에서 하가점상층문화가 성립되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이 지역에서 하가점하층문화가 終止한 것을 감안하면 하층과 상층문화 양자 간에 약 500년가량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공백기에 대해서는 이전 사회 집단의 집단적 이동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고,⁶⁹⁾ 현재의 문화 속성 분석이나 편년에 내재된 문제로 이해하는 해석도 존재하지만,⁷⁰⁾ 일찍이 장충배가 언명했듯이,⁷¹⁾ 이 공백기를 사이에 둔 양 문화 사이에서 현저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에 대해 학계는 대체로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⁷²⁾

하가점상층문화인도 농업을 바탕으로 한 정착생활을 영위하였다. 상층문화 유적에서는 起耕에서 수확까지 일련의 농경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석제 농기구가 발견되며, 곡괭이[鋤]와 괭이[耩] 등 약간의 청동제 농기구가 출토된다는 보고도 있다.⁷³⁾ 아울러 克什克騰旗 龍頭山 유적과 喀喇沁旗 大山前 유적 등에서 발견된 제사갱에는 탄화 곡물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建平縣 水泉 유적에서 조사된 구덩이에 잔존한 탄화 곡물은 약 0.64m의 두께에 달하였다.⁷⁴⁾ 그러나 상층문화의 생업경제가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는 초원문화의 요소가 뚜렷하여 兵器, 車馬器, 장식품 등이나 토기, 매장습속 등에서도 그와 관련된 요소가 적잖이 발견되기 때문이다.⁷⁵⁾ 특히 陰河 일대에서에서는 상층문화

69) 劉觀民·徐光冀, 「內蒙古東部地區青銅器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 創刊號, 1981.

70)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앞의 책, 34~36쪽.

71) 張忠培, 「夏家店上·下層文化及其相關的幾個問題」, 『中國北方考古文集』, 文物出版社, 1986, 207~208쪽.

72) 귀다순·장성더(저), 김정열 (역), 앞의 책, 889~893쪽 참조.

73) 烏恩岳斯圖, 앞의 책, 200쪽.

74) 王立新, 앞의 논문, 257쪽.

유적이 높은 산지로 이동해가는 경향도 관측되었는데, 이와 같은 거주지의 입지 변화는 당시의 주민이 농업과 동시에 유목경제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어 나간 것과 관련이 있다.⁷⁶⁾

하가점상층문화의 토기는 하층문화의 그것에 비하면 태도가 정선되지 않고 제작수법도 조악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 문화의 공예는 청동기에서 그 최고의 수준을 볼 수 있다. 청동기는 그 종류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작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병기, 차마기, 공구와 장식품에 보이는 동물문 장식예술은 매우 독특한 풍격을 보여준다.⁷⁷⁾ 상층문화의 청동기는 같은 시기 중원지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고유의 독특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상층문화의 청동기가 보여주는 독특한 풍격과 양식적 일체성은 이들 청동기가 현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의미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유적에서 발견된 동광과 동기 제작 유적 그리고 몇몇 유적에서 발견된 석제 및 토제 용범 역시 상당히 발달한 청동기 제조업이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이다.⁷⁸⁾ 요령성 林西縣 대정촌에서 발견된 銅鑛은 상층문화기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이 곳에서는 2.5km²의 면적 내에서 47여 條의 노천 채광이 발견된 바 있다. 대정 유적에서 발견된 수공업 공방 유구와 시굴 및 수습을 거쳐 입수된 유물은 이 곳에서 채광, 선광, 야련, 주조 등 일련의 공정이 모두 수행되었음을 시사한다. 4호 갱도에 대한 부분 발굴 중에서만 이상의 청동기 제작공정과 관련된 작업용 가설건물工棚 유구가 4곳 발견되었으며, 망치[錘]와 곡괭이[鍬] 등의 석제 공구가 총 1500여 점 출토되었다.⁷⁹⁾

하가점상층문화의 취락은 <표 2>와 <표 3>의 적봉시 인근 사례에서 보듯이 하가점하층문화의 그것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상층문화의 인구와 취락의 분포 및 조밀도가 하층의 그것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는 인상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의 취락 유적은 조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고, 유적에서는 성곽과 같은 두드러진 구조물도 발견되지 않았다.⁸⁰⁾ 때문에 지금 이 문화의 취락 규모와 분포 양상을 통해 당시의 사회조직을 분석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半支箭河 유역의 지표조사 결과에 입각한 유적 규모와 그 분포 양상에 대한 滕銘予의 추정은 하가점상층문화의 취락 규모와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하가점상층문화 시기의 경우, 반지전하 중류 일대 지역에서는 13개의 유적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의 16개 유적군의 분포 및 규모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그림 4> 2). 즉 상층문화기에도 하층문화기처럼 이 지역에 대형 취락과 중형 취락, 그리고 소형 취락이 군집을 이루며 일정

75) 烏恩岳斯圖, 앞의 책, 201쪽.

76)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앞의 책, 35~36쪽, 74쪽.

77) 烏恩岳斯圖, 앞의 책, 1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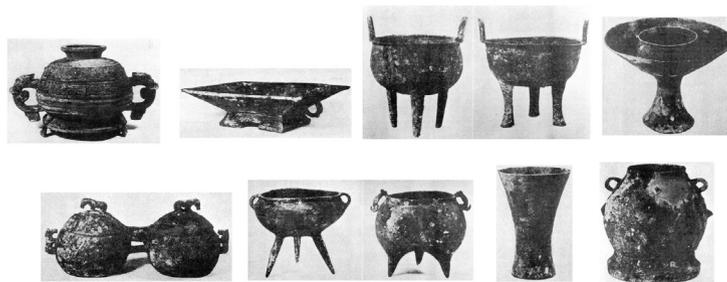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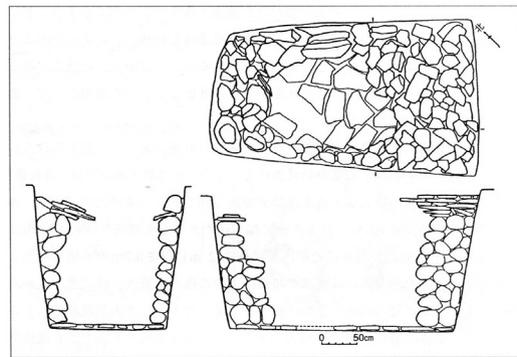
78)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앞의 책, 34~35쪽.

79)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林西大井古銅礦1976年試掘簡報」, 『文物資料叢刊』 7, 1983; 王剛, 「林西縣大井古銅礦遺址」, 『內蒙古文物考古』 1994: 1.

8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4: 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75: 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 1979: 2;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克什克騰旗博物館, 「內蒙古克什克騰旗龍頭山遺址第一·二次發掘簡報」, 『考古』 1991: 8.

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북부에 입지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독립 유적처럼 일부 등급구조가 명료하지 않은 군집이 존재하여, 이 지역 내의 중심취락이 하층문화의 그것만큼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⁸¹⁾

그러나 <그림 4> 2의 동부에서 보는 것처럼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에도 대형 유적군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시기에 들어 오히려 더욱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사회최상층이 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도 있다. 그것은 이 문화기를 대표하는 무덤인데, 내몽고 寧城縣 南山根 유적 M101호 무덤과 小黑石溝 유적 M8501호 무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8> 남산근 유적 M101호 석곽묘 평, 단면 및 출토 청동용기류(일부)

남산근 유적은 녕성현의 서쪽 八里罕鎮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M101호 무덤(<그림 8>)은 1963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역시 현지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이미 유구가 손상된 상태였다. 같은 해 9월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 무덤은 墓口의 길이가 380cm, 너비는 장변이 223cm, 단변이 180cm, 깊이는 240cm에 달하는 수혈식 석곽목관묘이다. 발견 당시 촌민이 유물을 수습하였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의 수량은 확실하지 않지만, 출토 유물의 총수는 적어도 50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자못 방

81) 滕銘予,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09; 滕銘予,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分布的空間考察」,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9: 4.

대한 규모로 그 절대다수는 청동기이다. 이들 부장 청동기 가운데는 용기와 공구, 병기, 차마기, 각종 장식품은 물론 거울까지 망라되어 있다. 출토 청동기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원지역에서 제작된 容器로, 여기에는 鼎 2점과 簠, 簋 각 1점이 포함되어 있다.⁸²⁾

小黑石溝 유적은 赤峰市 서남쪽 약 40km, 寧城縣 甸子鄉 小黑石溝村 동남쪽에 위치한다. 위에 언급한 남산근 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거리이다. M8501호 무덤은 1985년 촌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이미 유구도 손상되고 유물도 그 상당수를 임의로 수습한 상태였다. 유물은 대부분 회수되었다고 한다. 이 무덤 역시 석곽목관묘로 잔장 310cm, 너비 230cm, 깊이 210cm이며, 출토 유물은 400점이 넘는다. 지금까지 전하는 출토 유물은 약간의 석·골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동기로, 남산근 M101호 무덤과 마찬가지로 용기와 공구, 병기, 차마기, 그리고 각종 장식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견된 부장품 목록에 거울은 빠져 있다. 이 무덤에서도 중원지역에서 제작된 容器가 발견되었는데, 그 수량은 남산근 M101호를 훨씬 초월하여 모두 17점에 달한다.⁸³⁾

하가점상층문화시기에 이르러서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석성 등의 대형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상층문화기에 이르러 사회공동체가 쇠락하거나 분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인구 규모는 하층문화와 견주어 크게 손색이 없고, 특히 발달한 청동공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 내에 기능적인 분업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반지전하 일대의 유적 분포 상황은 이 시기에도 하층문화기의 그것처럼 각 지역의 취락이 그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일정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하층문화가 쇠락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 그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또 다른 문화적 배경의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가점상층문화의 사회공동체는 하층문화 시기보다 더욱 강력한 지배계층의 출현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녕성현 부근에서 발견된 남산근 M101호 무덤이나 소흑석구 M8501호 무덤은 그 대부분이 청동기로 구성된 풍부한 부장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금까지 발견된 동일 문화기의 어떤 다른 무덤과 견주어도 탁월하다. 이것은 하층문화의 대전자 무덤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무덤과 기타 무덤의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현격한 차이이며, 그만큼 상위 계층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집중도가 하층문화시기보다 고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무덤에서 발견된 중원계통의 청동예기는 그들의 주장층이 원거리에 걸친 군사행동을 주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다.⁸⁴⁾

3. 위영자문화의 사회

노로아호산 이서 지역에서 하가점상층문화가 변형하기 이전, 하가점하층문화 권역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위영자문화가 발전하였다. 1970년대 위영자문화의 존재가 식별된 이후 이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가

82)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 2.

83)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9.

84) 김정열, 앞의 논문, 2011.

꾸준히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영자문화의 유존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특히 건축유적 등 경제·사회생활을 반영하는 유적과 유물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위영자문화 유적의 분포 상황 및 취락형태, 사회구조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⁸⁵⁾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위영자문화 역시 정주형의 농업경제를 영위하였다는 점이다. 요령성 義縣 向陽嶺 유적이나 阜新縣 平頂山 유적 등에서는 주거 유적이 상당한 두께의 퇴적층을 형성하고, 유적에서는 쟁기(耩), 반월형석도, 낫(鎌), 磨盤, 磨棒 등의 농기구도 적잖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이것을 잘 입증한다. 다만 농기구의 종류는 하가점하층문화의 그것만큼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中耕用의 농기구(耩)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농업의 집약도는 하가점하층문화에 비해 오히려 퇴보된 것으로 평가된다.⁸⁶⁾

위영자문화의 도기는 모두 手製이며 소성온도도 높지 않다. 다만 청동기 등 금속기 제작은 하가점하층문화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위영자문화의 풍격을 보이는 청동기에는 단검, 管鋸斧, 도끼(鋤) 등의 무기류와 도끼(斧), 칼(刀), 송곳(錐) 등의 공구류, 귀걸이, 羊머리 장식, 聯珠形 장식 등 장식품류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⁸⁷⁾ 敖漢旗 李家營子 유적에서 출토된 도끼와 송곳 거푸집으로 보아, 청동기는 대개 위영자문화인 스스로가 제작한 것이며 외지에서 수입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밖에 和尚溝 유적의 무덤 등에서는 금제 팔찌(釧)가 출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⁸⁸⁾ 위영자문화의 청동기는 다양한 동물문양을 장식 요소로 하는데, 이들 동물문양은 대체로 북방계 문화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요서 일대에 동물문 장식이 등장하는 것은 위영자문화기에 이르러 시작되는 일이다.⁸⁹⁾

약간의 주거지를 제외하면 위영자문화의 취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문화기의 인구 규모나 취락 형태 및 그 분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영자문화기와 그 뒤를 이어 대체로 비슷한 공간 범위에서 등장하는 십이대영자문화의 인구 규모와 취락 분포에도 하가점하층문화기의 그것과 유사한 상황을 상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위영자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주요 분포 지역에서 수행된 지표조사의 결과를 통해 추정되는 사실이다(〈표 4〉).

〈표 4〉 요령성 조양시 내 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 개체 수 비교

행정구역	유적(수)		묘지(수)	
	신석기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雙塔區	5	63		
龍城區		66		
北票市		330		

85) 烏恩岳斯圖, 앞의 책, 96쪽.

86) 王立新, 앞의 논문, 256쪽.

87)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朝陽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 5.

8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 2.

89) 烏恩岳斯圖, 앞의 책, 101~106쪽.

행정구역	유적(수)		묘지(수)	
	신석기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凌源市	11	247		4
朝陽縣	6	242		6
建平縣	22	684	3	11
喀左縣	27	226		12
합계	71	1858	3	33

위의 표는 요령성 朝陽市 관할 각 행정구역 내의 시대별 유적 수를 정리한 것이다.⁹⁰⁾ 이 표를 보면 유적 개체 수의 경우 신석기시대의 71곳에서 청동기시대의 1858곳으로, 묘지의 수는 3곳에서 33곳으로 급증하였다. 이 통계수치는 지표조사에 의거한 것이고, 문화기를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로 大分하여, 개별 문화유형에 속하는 유적 개체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에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은 위에서 살펴본 노로아호산 이서, 적봉 지역 일대의 청동기시대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조양시 구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의 개체 수는 신석기시대의 그것에 비해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위영자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가 번영한 노로아호산 이동의 조양 지역 일대에서도 하가점상층문화기와 같은 조밀한 취락과 인구 규모가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조양 일대의 취락 간에도 일정한 계층적 질서가 존속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위의 지표조사에는 발견된 유적 가운데 객좌현의 현 소재지인 大城子鎮을 중심으로 한 大凌河 상류 지역 양안의 興隆莊鄉, 坤都營子鄉, 南哨鎮, 老爺廟鎮, 東哨鄉 일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는 면적 1600㎡(二道窪西 유적)~ 4500㎡(姜杖西 유적) 정도의 소형 유적과 2만㎡(卜頭溝 유적) 정도의 중형 유적, 그리고 6만㎡(坤都北 유적)~9만㎡(小馬架 유적) 등의 대형 유적 등이 두루 포함되어



〈그림 9〉 北洞 유적 전경 및 청동기 매장 구덩이 노출 상황⁹¹⁾

90)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下), 西安地圖出版社, 2009, 562쪽에서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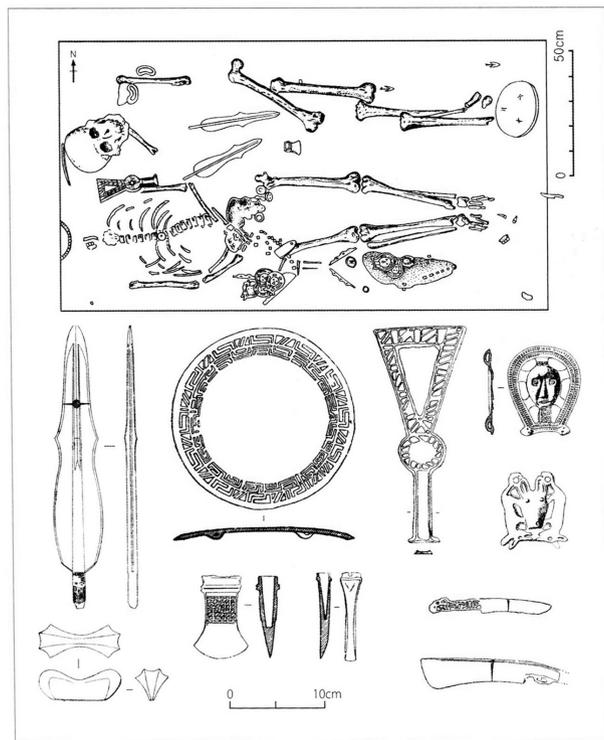
91) 경기도박물관, 『2010년 해외교류특별전 遼寧古代文物展』, 2010, 48쪽에서 재편집.

있다.⁹²⁾ 이들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위영자문화기에서 십이대영자문화기에 이르는 시대에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에서도 그 이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 취락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규모의 취락이 구심적인 형태로 분포하면서 계층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추정이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영자문화의 유적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馬廠溝, 山灣子, 北洞 유적 등 商·周交替期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청동예기 매장 구덩이이다(그림 9). 이런 유형의 유적은 지금까지 모두 11곳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인 8기가 객좌현 일대 대릉하 상류 양안의 약 30km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⁹³⁾ 위영자문화 유적에서 중원식 청동예기가 출토된 배경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중원문화의 담지자가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남긴 흔적이라는 설⁹⁴⁾과 중원지역과 모종의 관계를 맺은 정치집단에게 중원문화집단이 증여한 것이라는 설⁹⁵⁾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청동예기는 祭器로서 자신과는 다른 혈연의 자들에게 임의로 기증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점과 위영자문화 권역의 유적에서 일괄 출토되는 청동예기는 중원 문화에서 확인되는 禮制와는 다른 맥락에서 매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견해는 성립되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 청동예기는 전쟁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위영자문화인에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청동예기 매장 구덩이의 입지는 대개 높지 않은 산의 경사면이나 산지 주변의 완만한 구릉이며, 유구 주변에서 취락이나 기타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고립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이들 청동예기 매장 구덩이가 이것을 매장한 집단의 제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⁹⁶⁾

위영자문화에서 그 사회의 복합화 양상



〈그림 10〉 十二臺營子 M1호 무덤 및 출토유물
(경기도박물관 2010: 61)

92) 國家文物局, 위의 책, 530~561쪽.

93)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002: 2, 165쪽.

94)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002: 2, 165쪽.

95) 烏恩岳斯圖, 앞의 책, 110쪽.

96) 위영자문화 권역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예기의 유입 경위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김정일, 앞의 논문, 2009을 참고할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다만 이 문화의 권역에서 발견된 청동예기 매장 구덩이가 암시하는 사실은 위영자문화가 중원지역의 정치집단과 길항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집단에는 그와 같은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지휘하는 상당한 권력을 갖춘 수장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의 최고계층에 위치하는 수장은 중원에서 입수한 귀중품 청동예기를 공공의 제사의례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위영자문화의 취락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취락 사이의 질서 하에서 중원에서 입수한 청동예기를 공공의 祭儀에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은 그 관계망에서 최고 위치를 점유한 집단일 것이다. 그 집단의 수장은 하가점상층문화의 그들처럼 청동예기를 권력자의 위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 집단적이며 공익적 목적 하에 소비하였다. 이것은 그 수장의 권력이 공동체적인 규제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십이대영자문화문화의 사회

십이대영자문화의 주민 역시 농경에 바탕을 둔 정주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문화 유형에 속하는 유적에서는 도끼와 칼, 절구와 공이, 반월형석도, 磨盤과 磨棒 등 석제 농기구가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화된 기장도 발견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증경용의 농기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 문화의 농경이 다소 조방적인 형태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무덤에서 발견되는 희생에는 돼지 이외에 말과 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산업에서 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십이대영자문화인이 상당한 양의 車馬具가 제작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⁹⁷⁾ 이밖에 이 문화의 유적에서는 석제 혹은 청동제의 어망추가 널리 확인되며, 청동제 장식품 가운데는 가오리[鮫]와 같은 매우 독특한 소재도 확인된다. 이것은 십이대영자문화기에 어로가 식량획득원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⁹⁸⁾

십이대영자문화의 토기는 수제이며 문양이 없고 소성온도도 낮아 비교적 조악한 수준이다. 그에 비하면 청동기 생산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예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문화의 청동기에는 短劍, 창[矛] 등을 비롯한 무기류와 車馬具, 칼[刀], 도끼[斧] 등의 공구류, 그리고 거울 및 각종 장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두루 포함되어 있으며,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용범이 출토된 사례도 있다. 특히 이 문화의 청동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랑이, 늑대, 사슴, 뱀, 두꺼비, 가오리, 새와 人面 형상 등의 장식 소재에서는 인접한 주변 문화와는 색다른 개성이 드러나고, 특히 뱀, 두꺼비, 가오리 등의 형상 등은 이 문화에만 독특하게 출현하는 소재이다.⁹⁹⁾ 전체적으로 보면, 십이대영자문화기에는 청동기 제작 기술이 상당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주민들 가운데는 매우 전문화된 장인이 존재하였음도 분명하다.

97) 王立新, 앞의 논문, 256~257쪽.

98) 烏恩岳斯圖, 앞의 책, 240쪽.

99) 烏恩岳斯圖, 위의 책, 238~240쪽.

지금까지 조사된 십이대영자문화의 유적은 하가점상층문화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덤이다. 주요 사례로는 朝陽 十二臺營子 유적, 袁臺子 유적, 喀左縣 六官營子 南洞溝 유적에서 조사된 무덤 등을 꼽을 수 있다. 1958년 발굴된 십이대영자촌의 M1호 무덤(〈그림 10〉)은 石槨墓로, 묘곽의 크기는 장변이 180cm, 단변이 100cm 가량으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목곽을 갖추고 있고, 동검을 비롯한 무기와 거울, 동제의 차마구, 공구와 장식품을 부장하였으며,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M2호 무덤에서도 역시 동검을 비롯한 무기류와 동경, 동제 차마구 및 공구 등이 두루 출토되었다.¹⁰⁰⁾ 한편 南洞溝 유적에서 발견된 석곽묘 1기에서는 동검을 비롯한 무기류와 동제 차마구·공구는 물론 중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銅簋 1점도 출토되었다.¹⁰¹⁾ 이들 무덤은 지금까지 발견된 십이대영자문화 최고 수준의 무덤이다. 따라서 십이대영자나 남동구 일대에 이 문화의 권력의 중심지가 존재하였으며, 상기의 무덤들은 그 수장층에 해당하는 자의 것이라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십이대영자문화 최고 수준의 무덤을 보면 이 지역에서 先行한 위영자문화기와는 달리 당시 사회 최고 수준의 물품이 공공의 제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장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같은 시대 노로아호산 이서 지역에서 변영한 하가점상층문화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朝陽市 일대의 지표조사에 보이는 통계에서 대형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 간 위계질서를 추정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취락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이들 취락 군을 통치하는 수장이 존재하였음을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십이대영자의 M1호 무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수장의 권력은 위영자문화기와는 달리 공동체에서 탈피하여 보다 강력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십이대영자의 M1 무덤은 그 사회 구성원의 계층화가 첨예화되고, 그 정점에서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갖춘 수장층이 형성되었음을 암시하는 표지이다.¹⁰²⁾

십이대영자 M1·M2호 무덤, 혹은 南洞溝 석곽묘에서 모두 무기가 확인되고, 그 가운데 십이대영자 M1호 무덤에서 거울이 출토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문화기의 수장층이 무력을 권력의 바탕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도 보다 상위에 위치한 자는 神權을 통해 권력을 보장받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¹⁰³⁾ 이것은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십이대영자문화 수장층의 무덤에 보이는 규모나 부장품은 하가점상층문화에 비하면 여전히 손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장품의 절대량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십이대영자문화 사회의 권력집중도가 하가점상층문화의 그것보다 아직 덜 발달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와도 호응하는 현상이다.¹⁰⁴⁾

100)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 1.

101)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1977: 6.

102) 십이대영자문화 사회의 사회복합화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오강원, 앞의 논문, 2012도 참조.

103) 이청규,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 6, 2002, 26~29쪽.

104) 宮本一夫, 앞의 책, 191~198쪽.

Ⅳ. 결 론

기원전 2000년경 요서 지역은 하가점하층문화가 성립과 함께 청동기시대로 접어든다. 이때부터 요서 지역은 급격한 취락의 증가와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 진행된 赤峰 인근의 지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 시기에 들면 요서 지역에서 인구의 폭발적인 팽창과 취락 개체수의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을 특징짓는 요소는 석성이나 토성 등 성곽이다. 성곽의 규모는 천차만별이고, 또 특정한 취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가점하층문화기의 성곽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를 표지하는 상징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와는 무관하게 이 시기의 취락은 일정하게 계층화된 조직을 형성하면서, 중심취락을 향한 중심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다수의 취락이 군집을 이루며 계층적 질서로 조직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계층화 현상은 취락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전개되어 갔다. 특정한 취락의 상층부를 점하는 자들이 취락 내부는 물론 주변의 취락군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갔다. 그러나 취락과 취락 사이 그리고 취락 내부 각 계층 차이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권력은 공동체에서 탈피할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다. 하가점하층문화기의 거의 모든 취락이, 그 규모와는 관계없이 성곽으로 자신의 취락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각 취락의 폐쇄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가점하층문화가 소멸되고 요서 지역은 상당한 시간의 문화적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이 공백기를 거쳐 먼저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에서 위영자문화가 성장한다. 약 1~200년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등장하는 위영자문화기에 요서 지역의 인구나 취락 규모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시기의 사회는 하가점하층문화기보다 발전한 청동기를 제작할 만큼 발달했다. 관련 취락 자료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취락 사이, 혹은 취락 내부의 사회구조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영자문화 권역 내의 각 취락이 보여주는 다양한 규모는 이 시기에도 일정한 내적 질서를 포함하는 취락의 군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릉하 상류, 객좌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위영자문화기의 청동예기 매장 구덩이는 이 시기의 사회 복잡화 진전을 탐색하기 위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위영자문화(혹은 이 문화권 내에서 발달한 취락군 집이)가 중원지역의 정치집단과 일정한 갈등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집단에는 그 갈등관계를 지휘할 만큼 상당한 권력을 갖춘 수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집단의 수장은 중원에서 입수한 귀중품 청동예기를 공공의 제의에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위영자문화기의 그들의 首長은 바래품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진 청동예기를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집단적인 목적 하에 소비한 만큼, 아직까지 공동체의 규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수준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로아호산 이서 지역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절멸 이후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나 그와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청동기문화가 발생하여 변형하였다. 하가점상층문화 시기의 인구 규모와 취락의 밀집도는 하층문화 시

기의 그것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시기에 하층문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석성 등의 대형 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이것이 사회공동체의 쇠락이나 분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규모는 하층문화와 견주어 크게 손색이 없고, 사회 내의 기능적인 분업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반지전하 일대의 유적 분포 상황은 이 시기에도 하층문화기의 그것처럼 각 지역의 취락이 구심적 군집을 이루면서 일정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하가점상층문화의 사회공동체는 하층문화 시기보다 더욱 강력한 지배계층의 출현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는 증거도 있다. 녕성현 부근에서 발견된 남산근 M101호 무덤이나 소혹석구 M8501호 무덤이 그것이다. 이들 무덤은 청동기로 구성된 탁월한 규모의 부장품을 소유하였으며, 그 규모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이것은 이 시기 수장층이 장악한 권력이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로아호산 이서 지역에서 하가점상층문화가 번영할 무렵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청동기문화, 즉 십이대영자문화가 위영자문화의 뒤를 이어 성장했다. 이 시기에 들면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과 어렵업 등이 주요한 상업으로 성장한 반면, 토기 제작과 농경은 일정한 정도의 퇴보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의 취락 및 사회조직에 관한 정보는 하가점상층문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농경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십이대영자문화 시기에 뚜렷한 인구와 취락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십이대영자문화 권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복합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문화기에 속하는 몇몇 대형 무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화기에 속하는 최고 수준의 무덤에서, 이 사회에 존속하였을 수장이 상당한 정도의 부와 권력을 집중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선행한 위영자문화기와는 달리 최고 수준의 귀중품이 수장 개인의 부장품으로 매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비슷한 시간적 범위에 노로아호산 이서에서 번영한 하가점상층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십이대영자문화 수장층의 무덤에 보이는 부장품의 규모는 상층문화에 비하면 손색이 있다. 이것은 십이대영자문화 사회의 복합화 수준이 상층문화의 그것만큼 진전되지 못한 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성립 이후, 요서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적 집단에 의해 교대로 점거되었다. 그들은 생존의 기반이 된 경제적 배경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는 고도로 복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관된 맥락을 보여주었다. 권력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동시에 탈혈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개략적인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합화를 근거에서 추진해간 동력이 무엇인지, 사회구조의 변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반하였는지, 분열하는 사회를 통합한 이념적 기반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아직 대답하기 어렵다.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10년 해외교류특별전 遼寧古代文物展』, 경기도박물관, 2010.
 귀다순·장성더(저), 김정열(역),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범철,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東北亞歷史論叢』 33, 2011.
- 김정열, 「요서 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이청규 외,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정열,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증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韓國上古史學報』 72, 2011.
- 서길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의 석성(石城)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1, 2008.
- 宋鎬晟,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徐榮洙, 「古朝鮮의 位置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 2, 일조각, 1988.
- 오강원,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청동기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東洋學』 51, 2011.
- 吳江原, 「西遼河上流域의 靑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연구 - 銅劍의 系統과 使用集團問題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2, 1997.
- 이재현, 「요서 지역의 문명 및 초기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송호정 외,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재현,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이청규 외,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청규, 「동북아시아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1999.
- 이청규, 「신석기 - 청동기시대의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이청규 등,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청규, 「靑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2002.
- 略左縣文化館, 「記遼寧略左縣後墳村發現的一組陶器」, 『考古』 1982: 1.
- 郭大順, 「西遼河流域靑銅文化研究的新進展」, 『中國考古學會第四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5.
- 郭大順,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1987.
-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下), 西安地圖出版社, 2009.
- 內蒙古文物工作隊, 「敖漢旗范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3, 1984.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克什克騰旗博物館, 「內蒙古克什克騰旗龍頭山遺址第一·二次發掘簡報」, 『考古』 1991: 8.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小黑石溝 -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9.
- 寧城縣文化館·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考古系東北考古專業,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關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1985.
- 董新林,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2000: 1.
- 蔭銘予,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09.
- 蔭銘予,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分布的空間考察」,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9: 4.

- 徐光冀, 「赤峰英金河, 陰河流域的石城遺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中國考古學研究 - 夏鼐先生考古五十周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
- 烏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7.
- 劉觀民·徐光冀,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 創刊號, 1981.
- 劉國祥, 「大甸子玉器試探」, 『考古』 1999: 11.
- 劉國祥,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 1.
- 楊建華,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002: 2.
- 王剛, 「林西縣大井古銅礦遺址」, 『內蒙古文物考古』 1994: 1.
- 王立新,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 3.
- 王立新 외, 「夏家店下層文化淵源雜論」, 『北方文物』 1993: 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 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遼寧大凌河上游流域考古調查簡報」, 『考古』 2010: 5.
-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林西大井古銅礦1976年試掘簡報」, 『文物資料叢刊』 7, 1983.
-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朝陽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 5.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1977: 6.
-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1973: 2.
- 李恭篤·高美璇,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省博物館學術論文集』 第1輯, 遼寧省博物館, 1985.
- 張忠培, 「夏家店上, 下層文化及其相關的幾個問題」, 『中國北方考古文集』, 文物出版社, 1986.
- 張忠培, 「遼西古遺存的分區·編年及其他 - “環渤海考古學術討論會”上的發言」, 『遼海文物學刊』 1991: 1.
- 赤峰考古隊,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 - 赤峰考古隊田野工作報告之一』, 科學出版社, 2002.
-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2003.
- 田廣林, 『中國東北西遼河地區的文明起源』, 中華書局, 2004.
- 田廣林, 「夏家店下層文化時期西遼河地區的社會發展形態」, 『考古』 2006: 3.
- 鄭均雷, 「戰國燕墓的非燕文化及其歷史背景」, 『文物』 2005: 3.
- 趙賓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考古學文化時空框架研究的再檢討」, 『邊疆考古研究』 5, 科學出版社, 2006.
- 趙賓福,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
- 趙賓福, 「遼西地區漢以前文化發展序列的建立及文化縱橫關係的探討」, 『東洋學』 49, 2011.
-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 1.
- 朱延平, 「夏家店下層文化的社會發展階段」, 『中國北方古代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文史出版社, 1995.
- 朱永剛,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198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大甸子 - 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98.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樂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5: 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75: 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 1979: 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敖漢旗周家地墓地發掘簡報」, 『考古』 1984: 5.
 韓嘉毅, 「燕史源流的考古學觀察」, 『燕文化研究論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宮本一夫, 『中國古代邊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2000.

石川岳彦,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設樂博己 외 편, 『彌生時代の考古學3 多様化する彌生文化』, 同成社, 2011.

秋山進午, 『東北アジア民族文化研究』, 同朋舍, 2000.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8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Bronze Age Cultures of the Liaoxi Region and the Transition to Complex Society

Kim, Jung-ryol*

The transition to the Bronze Age in the Liaoxi region took place at around 2000 BCE. From this time onwards, until the 4th century BCE, the Liaoxi region witnessed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various Bronze Age cultures such as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Weiyingsi Cultur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Shiertaiyingzi Culture. Human civilization experienced a great leap forward with the beginning of the Bronze Age, which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production and, concomitantly, the division of labor,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es. It can therefore be expected that the Bronze Age in the Liaoxi region was also accompanied by a fundamental change in social structure.

As the Bronze Age cultures of this region were also 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Bronze Age cul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may also shed light on the issue of Gojoseon state formation and development. Due to these reasons,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has been greatly interested in the early civilization of the Liaoxi reg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Bronze Age cultures and their paths towards social complexity have not been examined in detail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is is, above all, due to the uneven nature of the archaeological material. While 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settlement and other associated sites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Bronze Age cultures of the Liaoxi region has been limited to typological studies carried out on their representative artifacts. The lack of continuity between the Bronze Age cultures of the Liaoxi region and the paucity of excavated material has thus become an obstacle in achieving a diachronic and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e of social complexity in the region.

Recently, however, the amount of archaeological excavated material from the Liaoxi region has increased rapidly. This will no doubt facilitate an in depth understanding of the Bronze Age societies of the region. The systematic field surveys carried out over a wide area will, in

* Research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articular, be of great help in achieving a broad insight into the process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focus of this article, therefore, will be to examine, diachronicall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lexity in the Liaoxi region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Bronze Age material culture.

[Key Words] Liaoxi, Bronze Age, Complex Society, Polity, Lower Xiajiadian Culture, Weiyngzi Culture, Upper Xiajiadian Culture, Shiertaiyingzi Culture